

남원다움관, 역사·문화 체험공간 인기

남원의 삶·기억 기록으로 보존 취지 기증 희망자 쇄도 개관 한 달만에 초등·대학생·일반인 등 2000명 다녀가

남원의 남원다움관이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문을 연 남원다움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관 한 달만에 2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와 협동조합, 청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단체 관람하거나 견학을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의 운영 취지에 동참하는 사·도민의 기증 희망도 쇄도해 한 달 동안 30여건의 자발적 기증이 이뤄졌다. 시는 남원다움관의 개관에 앞서 수집 공모전을 비롯 구도심 기록과 조사 등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근현대 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체험 콘텐츠를 구축했다. 연면적 671.67㎡, 지상 2층 규모의 남원다움관은 도서관과 박물관 성격을 복합한 라키비움으로 조성됐다. 1층에 조성된 '남원포레스트'는 남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서가로

광한루원, 국악, 춘향전 등 남원의 대표 문화자원 자료가 구비됐다. 2층은 남원 근·현대 생활사의 전시·체험장인 '공간의 기억', 행정 변천사를 살펴보고 체험하는 '나도 공무원'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남원의 근·현대대거리를 고증을 통해 3D화면으로 재현했다. 특히 인력거리를 타고 여행하는 가상체험은 아이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누구나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야외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중요기록물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남원다움관은 누구나 쉽게 방문해 남원의 이야기를 함께 즐기고 본인의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 남원의 삶과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다움관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광양 알루미늄 제조공장 조성사업 본격화 환경 관리 감독 강화 등 주민들 요구 조건 수용키로

광양지역 주민반발로 착공이 지연됐던 알루미늄 제조공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반대했던 주민들이 환경관리감독 강화 약속 등을 받아들여 공장 건립을 수용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광양시·광양알루미늄(주), 세풍 주민대표와 함께 광양알루미늄 투자를 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용해주조공장 운영 시 한국의 법령과 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국내 환경법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집진시설 및 TMS, 환경오염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 원료는 알루미늄 잉곳과 가공 후 부산물(스crap)을 이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연료는 LNG 천연 가스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

알루미늄의 용해주조설비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확산지역 예측모델링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세풍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운영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풍지역주민은 광양알루미늄의 판매, 호일을 생산하는 용해주조 공정에 대한 투자를 수용하며 합법적인 공장건설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건설한 광양지역 기업으로 성장 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알루미늄 주민들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합의를 계기로 알루미늄 공장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내 건설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고흥 유자·석류 축제 관광객 7만여명 '복적'

고흥군이 추진한 '제1회 고흥유자·석류 축제'에 7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지역 토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소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참여와 호응을 끌어들였다. 유자 주산지인 풍양면 대정마을 유자밭에서 열린 현장 체험 행사장에는 300여명의 외국인 탐방객이 찾았다. 축제 기간 9개국의 농수산물 바이어 34명을 초청해 농수축산물을 직접 보고 수

입해 갈 기회도 마련했다. 유자·석류 판매 부스에서는 1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석류는 주문량보다 생과 공급량이 부족해 한정판매를 했고, 유자는 생과 본격 출하 시기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유자 생산자 연락처를 받아 가기도 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축제의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민간주도로 냉정히 평가해 내년 축제는 더 발전한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정읍 배' 베트남 대형마트 14곳서 판촉행사 시, 지역 농산물 해외판로 확보 나서 주목

정읍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해외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배 생산 농가와 배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근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14개 대형마트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사진> 판촉 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정읍 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수출확대를 도모했다. 베트남은 대만에 이은 정읍 배 수출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수도인 호찌민을 중심으로 정읍 배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 방침이다. 시는 또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한 조생종인 원형배와 화산배를 비롯한 신교배 등을 올 연말까지 313t을 수출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에서 열린 '베트남 정읍산 배 수출판촉전 및 시장조사' 행사 모습. <정읍시 제공>

순창 월곡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완공 단계

지난해 7월 착수한 '전북 순창군 월곡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3년차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주택기 석축 쌓기, 노후·위험 담장 정비 등이 계획대로 진행돼 올 연말 완공될 전망이다. 팔덕면 월곡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17

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건강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월곡지구는 새뜰마을사업 신청 당시 30

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 109가구 중 78.9%, 슬레이트 주택 비율은 70.6%, 공폐기 주택비율은 28.4%, 재래식 화장실은 30.8%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생활 수준이 취약한 마을이었다. 군은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 66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홍물로 방치된 빈집철거, 마을진입로 확장, 주택기 위험지구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9@

익산 '자전거라이딩' 9일 개최
익산시는 '제2회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9일 만경강 자전거길 사수정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라이딩 행사는 오는 2020년까지 조성 완료되는 만경강 자전거길을 활용한 이용 문화의 확산과 시민 화합·건강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만경강 자전거길은 군산시 대야면에서 완주군 고산면에 이르는 44.8km 구간으로 조성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 시민 숙원사업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청신호'

중양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군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가칭)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모두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8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자해 3만4795㎡ 부지에 연면적 7000㎡ 규모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25m 길이의 10레인 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세월호 사고 등 증가하는 수상안 전사고 예방교육과 가파른 증가 추세인

노인 수영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실내수영장 추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사업 확보와 경영플 규모 등에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지난해에 이미 확보한 10억원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뒤 2021년 공사를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민의 숙원인 서군산 복합체육센터가 완성되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화이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